

학교운동부 투명성 높여 잡음 제로화

도교육청, 학교운동부 관련자 연수 실시... 경비 등 학교회계 편입·경비지출 법인카드 사용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전북교육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학교운동부 관련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도내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장 지도교사, 학부모, 교육지원청 체육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예방 △도핑 방지 △학교운동부 예산집행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등은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고 경비지출 시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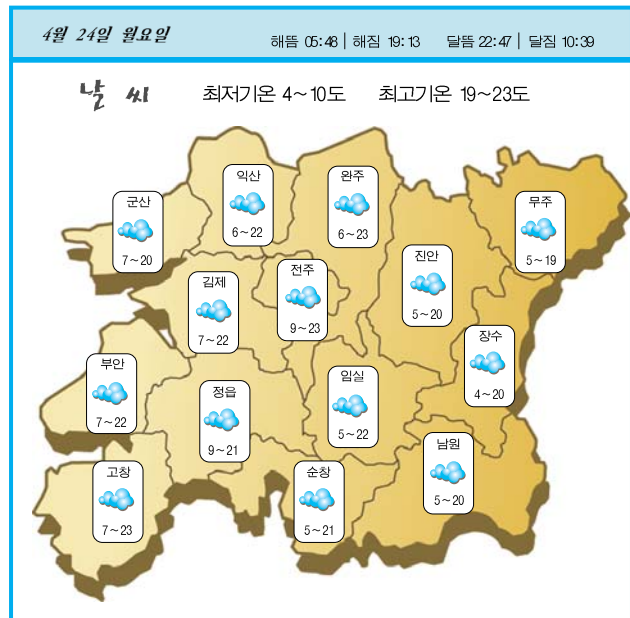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등 운영경비 지출내역은 학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관리부 분에서도 체육특기자 입사비, 우수 선수 스카우트 관련 금품수수, 운동부 경비집행 부정행위, 폭력 등 학교운동부 비리가 발생하면 관련된 지도자·선수 등에 대해 징계를 강화했다. 사안에 따라 지도자는 계약해지, 학생선수는 영구제명 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학생선수 학습권을 보장하기



U20 대표팀 전주 도착 김승수 전주시장이 22일 전지훈련을 위해 전주를 찾은 U-20 월드컵 국가대표 신태용감독에게 환영의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선수단은 일주일 동안 월드컵경기장 등에서 적응 훈련에 나서며 다음주 수요일에는 전북현대와 연습경기를 치른다.

위해 최저학력제 도입, 전국단위경기 대회 참가제한, 상시합숙근절,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등의 학력증진 방안을 강구하여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수상을 추진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고1 담임교사·진로진학상담교사 대상 진학지도 전문성 신장 대입전형 연수 추진

전북도교육청이 2017학년도 진학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고1학년부장, 담임교사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대입 전형 집중 연수를 추진한다. 이번 연수는 21일부터 22일까지 부안 해나루 호텔에서 고1학년부장 및 담임교사, 일반고 진로진학상담교사, 주관 팀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학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해 추진한다.

1일차에는 인승국 전북 대입지원단장의 '변화하는 대입제도 및 2018학년도 이후의 대입전형 전망', 허민택 장수고 교사가 '고교 담임교사를 위한 대입상담프로그램 활용법 안내', 박규만 전북대 입학사정관의 '2018

전북대학교 전형안내 및 학생부종합 전형 평가 이해'를 주제로 열린다. 2일차에는 김하정 수원외고 교사의 '고교 3년간의 진로 연계성을 고려한 학생 맞춤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과 김한기 성균관대 입학전형팀장의 '고1부터 시작하는 학생부중심전형 준비 방법 및 대입서류전형 평가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년별 연계적 대입 진학지도에 대한 담임교사 역량강화를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며 "담임교사의 대입진학지도 역량 제고 및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4차산업혁명 대비 미래형 창의융합과학실 구축

전북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무선통신(Mobile)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고 미래형 과학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형 창의 융합과학실 구축을 지원한다.

총 5개 학교를 선정, 학교당 3천만원씩 지원해 시설 설치와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형 창의 융합과학실은 전통적인 과학실험 뿐만 아니라 창의적 탐구활동(STEAM, 프로젝트, 과제연구 등)과 과학실험이 가능한 창의적 공간 교육과정 기반 실험교구와 기자재를 갖춘 과학실을 말한다.

이에 따라 코칭과 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하게 전자 교탁, 단초점 프로젝터를 갖추고 3D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디지털 현미경 등 실험을 포함한 과학 탐구활동을 지원할 설비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달 25일까지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장 및 담당교사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개 학교를 5월초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 대만 최고 대학과 교류 강화

타이페이의 정치대학·타이중 동해대학 인적교류·연구·산학협력 등 제분야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대만 최고 대학들과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대 이남호 총장은 지난 15일부터 대만 최고 대학인 타이페이의 정치대학과 타이중에 있는 동해대학을 방문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정치대학은 전북대아 지난 2009년에 협정을 체결한 이래 가장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대학으로 대만 대통령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60% 이상이 이 대학을 졸업했거나 교수 출신일 만큼 대만 내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총장은 정치대학 주행일 총장과 접견을 통해 양교 간 진행되고 있는 학생교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연간 교환학생의 인원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데 합의했다. 특히 올해 전북대 개교 70주년 기념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 초청의사를 전달했고 참석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또한 이 총장은 이 대학 한국어문화과 쉐칭즈 학과장파도 만나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시 전북대가 후원함으로써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한국어문화과 학생들이 전북대에서 한국어연수 또는 졸업 후 석사학위과정에 진학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어 방문한 동해대학은 중부 타이중에 위치한 대만 최초의 사립대학으로 2011년 전북대와 협정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 대학은 대만 내에서도 교내 조경이 가장 잘 조성된 대학으로 손꼽히고 있어 가장 한국적인 대학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북대에 건축과 조경 등 다방면에서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총장은 이 대학 왕리치 연구발전처장 등 동해대학 대학 관계자들과의 회담을 통해 국제교류와 산학협력 분야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대학들이 연구영역을 타파하고 공학에 인문학을 접목시키는 학문 간 융합을 위해 노력하고 혁신과 창의적 사고를 위한 교육 실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교수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의 지원, 최근 한국과 대만의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학생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감소 추세 극복 대학들의 생존을 위한 유사학과 간 합병, 교수교류에 있어서는 방파 기간을 통한 집중 강의 프로그램 및 안식년을 이용한 교환교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남호 총장은 "이번 대만내 자매대학들과의 인적교류, 연구 및 산학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교류지역과 분야의 다양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한국과 대만의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 고창캠퍼스 지역민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고창캠퍼스에 고창 지역민들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전북대 평생교육원(원장 윤정수)은 고창군과 연계해 고창캠퍼스에 지역민 맞춤형 교육과정 6개를 개설, 20일 오후 7시 30분 수강생 및 지역주민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에 개설된 과정은 라인댄스를 비롯해 부동산강매, 사주 명리학 붓 길 따라 마음 여행, 원예치료사, 커피 비리스타 등으로 2주 과정으로 이뤄진다.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하고 성인 학습자들의 평생학습 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지역민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된다. 특히 전북대 고창캠퍼스는 평생교육과정뿐 아니라 지역민 재교육을 위한 학사학위 과정인 '농생명과학과'와 목조건축 전문인력양성 과정 등도 운영되고 있어 지역 우수 인재의 산실이 되고 있다.

윤정수 전북대 평생교육원장은 "지급의 평생학습 사회에서 배움이란 끝이 없는 것"이라며 "고창 지역민 여러분들이 인생의 이모작 삼모작을 위해 배움에 정진하시길 바라며, 전북대 평생교육원과 고창군은 학습과 일, 삶이 조화로운 평생교육을 통한 행복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지켜주세요

행복한 교육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리밭'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혁신입니다.